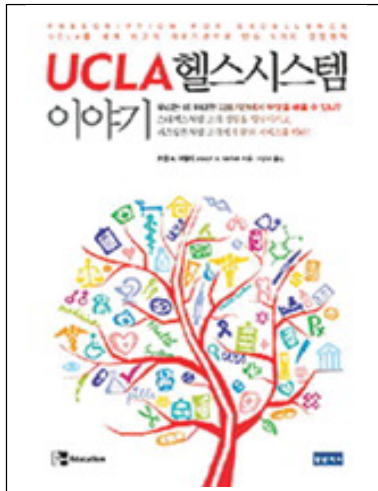




▶▶▶ UCLA 헬스시스템 이야기

〈조셉 미첼리 지음/이상규 옮김/청년외사 펴냄/2만 3000원〉

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이 된 UCLA병원의 경영혁신 사례를 소개한 〈UCLA 헬스시스템 이야기〉가 출간됐다.

기업 컨설턴트이자 ‘미첼리 익스피리언스’의 경험 담당 최고 책임자인 조셉 미첼로가 저자다. 그는 베스트셀러 〈스티브스 사람들〉(리처드슨 꿈의 서비스)를 썼으며, 시애틀의 어시장 파이크 플레이스의 존 요코야마 사장과 함께 〈물고기 날다〉를 펴내기도 했다. 이 책은 모든 병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UCLA병원의 내부를 속속들이 보여주면서, 어떻게 하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준다.

저자는 UCLA헬스시스템의 성공요인을 ▲환자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라 ▲실수가 발생할 틈을 남기지 말라 ▲최고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라 ▲주도적으로 미래를 창조하라 ▲최고의 서비스는 기업을 살찌운다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. 이 책을 번역한 이상규 단국의대 교수(예방의학)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대 워튼스쿨에서 의료경영 전공으로 MBA를, 연세대 대학원에서 보건정책 전공으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. (☎ 02-2646-0852).

▶▶▶ 36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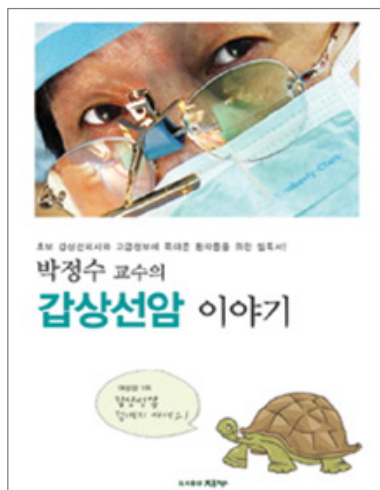
〈낸시 L. 메이스·피터 V. 라빈스 지음/안명옥 옮김/조윤커뮤니케이션 펴냄/2만 5000원〉

가족이 치매에 걸렸거나, 치매 환자로 의심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? 낸시 L. 메이스와 피터 V. 라빈스 존스홉킨스 의대 정신의학·행동학과 교수가 쓴 〈36시간: 길고도 아픈 치매가족의 하루〉는 치매가족들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. 치매의 심각성은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생기면 환자는 물론 가족 모두의 생활이 흔들리게 되는데 있다.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하루가 36시간이나, 48시간 같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.

이 책은 존스홉킨스의대 교수들이 30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필했다. 어떻게 치매환자를 잘 돌보고, 가족과 친지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지 다양한 경우의 치매 극복 사례들을 보여준다.

모두 1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▲치매의 판정법 ▲치매 증상 ▲치매 예방법 ▲요양기관 이용법 ▲치매 연구 동향 ▲치매 의약품개발 동향 ▲치매 관련 정보 및 법규 ▲국내 치매 관련기관 등 치매 극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. (☎ 02-730-8841).





▶▶▶ 박정수 교수의 갑상선암 이야기

〈박정수 지음/도서출판 지누 펴냄/2만 2000원〉

갑상선외과학에 입문한지 30여년이 넘는 박정수 연세의대 교수(강남세브란스병원 갑상선암센터)가 〈박정수 교수의 갑상선암 이야기〉를 펴냈다.

이 책에는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지 못했던 아쉬움과 아직 이 방면에 지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초보 갑상선 의사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저자의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. 모두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양성 갑상선 질환에 대해 다룬다. 갑상선의 해부와 생리는 물론 갑상선 질환 외에도 여

러가지 갑상선암의 병태생리·진단과 치료의 최신경향·수술후 보조치료·수술 후 예후에 대해 최신문헌을 기초로 갑상선 초보의사는 물론 일반 갑상선 환자와 가족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.

두번째 장은 ‘갑상선암 치료의 실제’이다. 갑상선암으로 입원해서부터 퇴원후 관리까지의 실제적인 치료과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, 마지막 장은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. 갑상선암 환자라면 누구라도 궁금해할 내용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.(☎02-3272-2052).

▶▶▶ 해독주스

〈서재걸 지음 /맥스미디어 펴냄/1만 4500원〉

자연치료의학 전도사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재걸 원장이 〈해독주스〉를 펴냈다.

우리는 매일 독소의 습격을 받고 있다. 즐겨 먹는 밀가루·패스트푸드·기름진 음식·술 등 탓에 몸속에는 지방이 쌓이고,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로 노폐물이 만들어진다. 독소가 쌓이면 소화불량·변비·당뇨·만성두통·고지혈증·변비와 심지어 암까지 발병하게 된다. 독소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지만 매일 독소를 제거하는 일만 충실하게 해준다면 건강상의 피해는 줄일 수 있다. 이 책은 몸 안의 독소를 해독주스로 해결하는 과정이 잘 소개돼 있다. 채소와 과일을 삶고 갈아서 만든 해독주스의 효능은 어느 정도일까. 체험담을 통해 실제 어떤 환자가 어떤 식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해졌는지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.

이 책은 ▲건강의 프로되기 ▲우리는 왜 해독을 해야 하나 ▲독소를 빼주는 해독주스 ▲근본부터 건강하게! 장 해독 ▲모두 간 때문이야! 간 해독 ▲부아가 치미는 폐 잠재우기! 폐 해독 ▲해독주스 성공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 저자는 미국 하버드의대 통합동양의학 전문과정을 수료한후 고려의대 대학원을 졸업한 자연치료의학 전문가이다. 대한자연치료학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포모나자연의원 대표원장을 맡고 있다.

